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임현숙¹, 류정림^{2*}

¹호원대학교 간호학과, ²군산간호대학교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Making in Nursing Students

Hyun-Suk Lim¹, Jeong-Lim Ryu^{2*}

¹Department of Nursing, Howon University

²Kunsan College of Nursing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전북지역 간호대학생 136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0년 8월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편의표집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liner regression analysis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촉진하기 위해 감성지수를 향상시키고, 회복탄력성과 같은 긍정적인 자원을 고려하여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136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he Jeonbuk region. Data was collected in September 2020 via a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23.0 program. The analysis used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s tests. The results showed that emotional intelligence was a circle activity ($F=3.13, p=.047$), and motivation to nursing ($F=4.16, p=.008$). Resilience was a circle activity ($F=5.50, p=.005$), and nursing major satisfaction ($t=2.19, p=.03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ade ($F=3.12, p=.048$) and major satisfaction ($t=2.36, p=.020$).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r=.63, p<.001$),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67, p<.001$),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76, p<.001$) showed significant static correlation.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esilienc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Z=6.48, p<.001$), and explanatory power was 62.2%.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improve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ersonalized and resilience-enhanced education program.

Keywords : Decision Making,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fficacy, Nursing Student, Resilience

본 논문은 2020년도 호원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eong-Lim Ryu(Kunsan College of Nursing)

email: jeonglimr@kcn.ac.kr

Received October 12, 2020

Revised November 2, 2020

Accepted November 6, 2020

Published November 30,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진로의 선택과 결정은 평생에 걸쳐 계속된다. 대학생 시기는 구체적인 미래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성인의 첫 번째 단계로 중요한 시기이다[1].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간호사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관심과 선호도가 증가하고 또한 높은 취업률로 인하여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2]. 이에 간호대학생의 경우 전공과목에 대한 숙고의 과정없이 높은 취업률과 고소득을 이유로 입학을 하기도 한다[3]. 간호대학생들은 타 전공학생들과 달리 대학 진학과 동시에 이미 간호사라는 진로의 방향이 결정되었기에 진로에 대한 고찰이 부족한 상태로, 국내 상급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취업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취업 후 본인이 막연하게 생각하였던 간호사이기에 입사하면서 갈등상황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조기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4-6]. 실제로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이 33.6%로 간호사 평균 이직률 16.8%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결과이다[7]. 이러한 간호사의 높은 이직율은 간호사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지고 간호사 부족은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있어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에 충분한 탐색으로 올바른 진로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에서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8].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DMSE)은 진로결정을 하는데 있어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9]. 즉,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진로결정과정에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개인적 확신을 갖게 된다. 진로결정 행동에 적용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원래 Bandura(1977)에 의하여 제시된 개념에서 출발하였고, 개인의 주어진 과업에 대하여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 정도를 의미한다[10]. 선행연구 고찰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진로정체감과 추후 직업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11]. 자신의 진로목표를 정하여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진로결정능력에 대한 유능감에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일 수록 진로결정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보다 의존적으로 결정한다고 하였다[12]. 따라서 진로의 성

공적인 수행과 관련하여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다[13].

감성지수(emotional intelligence)는 여러상황에서 타인과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14]. 감성지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성향 중 긍정적 감정 성향으로 감성을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14],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15]. Ko[16]은 간호대학생은 임상에서 만나는 타 의료인, 환자, 보호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진실한 공감능력, 타인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감성지수를 대학시기에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감성지수가 낮은 사람일 수록 정서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며, 스트레스 지각정도가 높고 사회생활에서도 적응이 어렵고[17],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일 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활용하여 심리적, 생리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성향인 회복탄력성이 높다. 이에 자신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감성지수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18,19].

회복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등 간호사가 되는 과정에서 겪는 힘든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개인적인 발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20]. 회복탄력성은 안녕과 건강,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여겨져 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21]. 또한 회복탄력성은 대학생활에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조절 능력이며, 스트레스 상황과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이므로 중요한 역할이다[22].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대처자원을 잘 활용하는 대처능력이 높고[23], 진로준비 행동을 많이 취하며[24], 임상실습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5].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26]과 회복탄력성[27]에 영향을 미치며, 회복탄력성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28,29]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1차원적 인간관계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을 고려한 것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2차원적인 인과관계 연구로 직접적 효과가 가정된 연구에서 매개효과

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간접효과가 유의할 경우 특정 효과측면에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더욱 확장된 연구가 가능하다. 진로관련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학업을 이수하는 과정과 관련되고 나아가 간호사로서 임상현장에 대한 적응력과 이직과 관련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가 증진된 상황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평가하는데 회복탄력성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규명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할 수 있는 감성지수와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2.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1.2.2 대상자의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확인한다.
- 1.2.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차이를 확인한다.
- 1.2.4 대상자의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1.2.5 대상자의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수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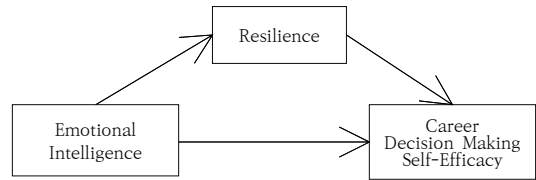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framework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1) J도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2)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하였다. 표본크기 산정은 G-power 3.1.9.2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에서 감성지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예측변수 10개,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로 산출할 경우 최소 표본 수는 118명으로 산정되어 총 155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 중 무응답 문항이나 부정확한 응답이 많은 19부는 제외하고 최종 136부를 분석에 사용해 본 연구의 표본은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8월 17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감성지수

감성지수는 Wong & Law[14]가 개발한 측정도구로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을 정현우(2007)가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30]. 본 도구는 자기감성이해 4개 문항, 타인감성이해 4개 문항, 감성조절 4개 문항 및 감성활용 4개 문항으로 총 16개 문항이다. 사용한 도구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Likert척도이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2.3.2 회복탄력성

도날드 리비리(Donald Reivich)와 카렌 샷트(Karen Shatte)가 개발하고 김주환이 변안한 '한국형 회복 탄력성 지수(Korean Resilience Quotient: KRQ-53)'에서 김주환, 김민규, 신우열(2009)이 번역이 어색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여 한국의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

상으로 타당화 한[31] 회복탄력성 척도(YKRQ-27)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회복탄력성 지수 검사는 총 27문항으로 통제성(9문항), 긍정성(9문항), 사회성(9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제성의 하위요인으로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이며, 긍정성의 하위요인은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성은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 검사를 개발한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의 연구에서 Chronbach's α .811로 나타났고[33], 본 연구에서는 .941이었다.

2.3.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측정도구로[32] CDMSES(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의 50문항을 Betz, Klein, 그리고 Talyor(1996)가 5가지 하위 요인별로 5문항씩 선정, 구성한 단축형 CDMSESSF(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를 이기학과 이학주(2000)가 타당화[33]하여 만든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문항으로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 등 5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5문항이다. 개별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82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51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 변수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고 분석하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다. 대상자가 지각한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크기는 Baron-Kenny(1986)의 절차[34]를 이용하였고, Sobel-test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시작 전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속한 H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041585-202004-HR-001-01)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설문지 첫 장에 연구 설명문과 연구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자료수집은 대상자의 자의에 의한 참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참여를 원치 않은 대상자는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참여한 때도 연구 과정에서 참여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 중에도 참여를 거부할 권리와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결과는 출판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가 관리하며, 3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것이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에서는 20대가 89.7%(124명), 30대 이상이 8.8%(12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85.3%(116명)이고, 결혼상태에서는 미혼이 96.3%(131명)로 대부분이었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67.6%(92명)로 더 많았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가 83.1%(113명)로 대부분이었고, 성적에서 중위권이 69.1%(94명)이고, 간호학전공만족도에서 나쁘지 않은 경우가 77.9%(106명)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감성지수에서는 동아리 활동($F=3.13, p=.047$), 간호학과 선택동기($F=4.16, p=.00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동아리 활동($F=5.50, p=.005$), 간호학전공만족도($t=2.19, p=.03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성적($F=3.12, p=.048$), 간호학전공만족도($t=2.36, p=.0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감성지수에서 동아리 활동은 활발하게 하는 경우,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인 경우에 감성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에서 동아리 활동은 활발하게 하는 경우에, 간호학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에

Table 1.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6)

Variables	Categories	n(%)	M±SD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M±SD	t/F(p) Scheffé
Age (yr)	20 ^a	124(89.7)	24.51±4.74	4.77±0.89	-.414 (.680)	3.65±0.52	.148 (.882)	3.53±0.56	.277 (.782)
	>30 ^b	12 (8.8)		4.89±0.91		3.63±0.48		3.48±0.57	
Gender	Male	20(14.7)		4.77±0.91	-.330 (.742)	3.62±0.49	-1.089 (.278)	3.51±0.54	-.549 (.584)
	Female	116(85.3)		4.84±0.91		3.76±0.59		3.59±0.67	
Marital Status	Single	131(96.3)		4.78±0.90	.048 (.962)	3.65±0.51	.407 (.684)	3.53±0.55	.272 (.786)
	Married	5 (3.7)		4.76±1.16		3.56±0.64		3.46±0.88	
Religion	Yes	44(32.4)		4.76±0.93	-.231 (.818)	3.63±0.50	-1.189 (.850)	3.47±0.50	-.827 (.410)
	No	92(67.6)		4.79±0.90		3.65±0.52		3.55±0.58	
Living with parents	with family	113(83.1)		4.82±0.91	.519 (.597)	3.65±0.51	.045 (.956)	3.53±0.56	.224 (.800)
	with friend	12 (8.8)		4.56±0.81		3.60±0.35		3.42±0.33	
	alone	11 (8.1)		4.68±1.02		3.66±0.67		3.52±0.69	
Circle Activity	Do not join ^a	72(52.9)		4.73±0.94	3.133 (.047)	3.56±0.50	5.503 (.005)	3.51±0.61	2.251 (.109)
	Moderate activity ^b	32(23.5)		4.57±0.84		3.60±0.48		3.39±0.50	
	Very activity ^c	32(23.5)		5.11±0.82		3.90±0.51		3.68±0.47	
Academic performance	High ^a	25(18.4)		5.16±0.89	2.686 (.072)	3.85±0.48	2.574 (.080)	3.72±0.56	3.115 (.048) a>c
	Middle ^b	94(69.1)		4.71±0.83		3.60±0.50		3.51±0.53	
	Low ^c	17(12.5)		4.65±1.19		3.58±0.59		3.29±0.61	
Motivation to Nursing	Aptitude interest ^a	42(30.9)		5.16±0.77	4.159 (.008) a>c	3.75±0.50	.855 (.466)	3.67±0.59	1.795 (.151)
	Family invitation ^b	22(16.2)		4.51±0.92		3.62±0.55		3.40±0.52	
	Employment ^c	60(44.1)		4.60±0.95		3.58±0.52		3.45±0.55	
	Grades ^d	12 (8.8)		4.86±0.77		3.67±0.45		3.58±0.46	
Major satisfaction	Satisfied	30(22.1)		4.90±0.87	.809 (.420)	3.83±0.46	2.186 (.031)	3.73±0.52	2.355 (.020)
	No bed	106(77.9)		4.75±0.92		3.59±0.52		3.46±0.5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성적은 상위권인 경우에, 간호학전공만족도는 만족하는 경우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3 대상자의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정도는 다음과 같다. 감성지수는 7점 만점에 평균 평점 4.78점, 회복탄력성은 5점 만점에 3.65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정도는 5점 만점에 3.52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Degree of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136)

Variables	Mean±SD	Range
Emotional Intelligence	4.78±0.91	1~7
Emotional understanding of self	5.09±0.99	1~7
Emotional understanding of others	5.11±1.02	1~7
Emotional control	4.52±1.61	1~7
Emotional use	4.40±1.19	1~7
Resilience	3.65±0.51	1~5
Control	3.53±0.56	1~5
Positivity	3.63±0.57	1~5
Sociality	3.78±0.61	1~5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3.52±0.56	1~5
Career information collection	3.55±0.60	1~5
Target selection	3.51±0.65	1~5
Planning	3.47±0.64	1~5
Problem solving	3.47±0.65	1~5
Self-evaluation	3.61±0.58	1~5

3.4 감성지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감성지수,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감성지수는 회복탄력성($r=.63, p<.001$)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r=.67, p<.001$)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회복탄력성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도($r=.76, p<.001$)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136)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r(p)$		
Emotional Intelligence	1	
Resilience	.625***	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665***	.757***

*** $p<.001$

3.5 감성지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연구대상자의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의 가정충족 여부를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이 1.78~2.12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차의 공차 한계는 0.58~1.00으로 0.1 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VIF) 1.11~1.89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어서 회귀분석에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Table 4.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136)							
	B	β	t	p	Adj. R ²	F	p
1. EI → RS	.365	.646	9.785	<.001	.412	95.753	<.001
2. RS → CDMSE	.384	.625	9.271	<.001	.386	85.944	<.001
3. EI, RS → CDMSE					.602	102.907	<.001
EI → CDMSE	.142	.232	3.256	.001			
RS → CDMSE	.662	.610	8.569	<.001			

Sobel test: Z=6.48, $p<.001$

EI=Emotional Intelligence; RS=Resilience; CDMSE=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Standard error, Adj. R2=Adjusted R2.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의 검증결과를 실시하였다[Table 4]. 1단계에서의 분석결과 감성지수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성지수는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646, p<.001$), 설명력은 41.2%였다. 2단계의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감성지수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63, p<.001$), 설명력은 38.6%였다. 3단계의 분석결과 감성지수와 매개변수인 회복탄력성을 함께 독립변수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결과 감성지수($\beta=.23, p<.001$), 회복탄력성($\beta=.61, p<.001$)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단계에서 회복탄력성을 매개변수로 했을 때 회귀계수가 2단계의 .63에서 .23으로 감소하여 회복탄력성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60.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 검증은 Sobel 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z=6.48, p<.001$)[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은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

를 통해 감성지수를 높인다 하더라도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높은 간호대학생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35]와 일맥상통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평균 평점은 3.52점으로, Kim 등[36]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3.47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Jung 등[37]과 Lee[38]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26점과 Kim 등[39]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3.24점 보다는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하부요인별로 보면 자기평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3.61점으로 가장 높았고,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부분이 3.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Jung 등[37], Lee 등[40], 과 Lee[41]의 연구에서 자기평가가 가장 높고, 문제해결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 영역이 취약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계획수립 및 문제해결 영역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경우, 학업성적과 간호학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적에서 상위권이 하위권보다, 간호학전공만족도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가 만족하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Jung 등[37]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성적과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유사하였다. 학생들이 간호학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부합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입학과 함께 정해진 진로선택에 있어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이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간호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각각 변인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수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26]. 감성지수는 회복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An 등[42] 연구에서 감성지수가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회복탄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29,36,43]. 즉, 각각의 변인들이 상호영향을 미치면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감성지수와 회복탄력성은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연관성이 있다. 즉, 감성지수와 회복탄력성은 교육에 의해서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므로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자아성찰, 정기적인 심리상담, 치료적 의사소통 실습 등 감성지수와 회복탄력성을 함께 향상시킬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27]. 따라서 진로결정을 위한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지수와 회복탄력성을 탐색하고 증진시키는 지도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성지수를 높게 인식하고 회복탄력성이 증가되어 있는 간호대학생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Kim 등[4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간호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대학생활에서부터 감성지수를 높일 수 있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 공감 및 감정조절 등의 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은 진로결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로 회복탄력성이 높은 대학생은 진로결정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지각함을 의미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자신이 속한 상황과 환경에서 진로와 관련된 문제와 부딪칠 때 문제 극복을 위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상담에서 진로소명 의식 함양,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 자아탄력성의 증진을 위한 주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감성지수, 회복탄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각각의 관계와 영향을 확인하려는 1차원적 연구들에 비해,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황에 알맞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변수인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2차원적 인과관계를 규명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지수 뿐 만 아니라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으로 구성된 회복탄력성을 이끌어내는 대학 내 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고,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수가 높을 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 이에 감성지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교과목 개설이나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둘째, 감성지수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성은 감성지수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회복탄력성을 고려하여 진로결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필요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본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 해석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기초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진로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간호대학생의 감성지수, 회복탄력성이 반영되는 진로적성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E. Y. Lee, "The Impact of self-status, true self and consistency with self-at-present of collegians on career matur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20, No.1, pp.1-12, 2007.
- [2] S. K. Chung, "Effects of Nursing Student's Academic Failure Tolera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12, pp.7160-7169,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12.7160>
- [3] E. A. Kim, & K. W.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 Social Nursing Education*, Vol.18, No.2, 312-322, 2012.

-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4] Y. J. Ko, &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2, 62-71,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1.062>
 - [5] I. O. Moom, & G. W. Lee,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83-91, 201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83>
 - [6] K. A. Lee, & J. H. Kim,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12 No.1, 42-49, 2015.
DOI: <http://dx.doi.org/10.16952/pns.2015.12.1.42>
 - [7] B. H. Kim, B. Y. Chung, J. K. Kim, A. Y. Lee, S. Y. Hwang, J. A. Cho, J. A. Kim., "Current situation and the forecast of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nursing workforce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25 No.6, 701-711, 2013.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2.24.6.701>
 - [8] K. H. Kim, & E. H. Hwang,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2, pp.436-445,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2.436>
 - [9] G. Hackett, & N. E. Betz,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8, No.3, pp.326-339, 1981.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1\)90019-1](https://doi.org/10.1016/0001-8791(81)90019-1)
 - [10] A. Bandura,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7b.
 - [11] E. H.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15, No.1, pp.15-21, 200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09.15.1.015>
 - [12] J. S. Jung, "The effect of the person's sex-role identity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pattern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15, No.1, pp.135-155, 2002.
 - [13] J. G. Kim, & S. S. Park,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5, No.1, pp.279-300, 2014.
DOI: <https://doi.org/10.15703/kjc.15.1.201402.279>

- [14] C. S. Wong, &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13, No.3, pp.243-274, 2002.
DOI: [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15] H. J. Park, *The effect of emotional leadership program on emo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of head nurses*, Ph.D dissertation, Jinju National University, Gyengnam, Korea, 2010.
- [16] M. S. Ko,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10, pp.280-291,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10.280>
- [17] J. D. Mayer, D. R. Caruso, &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meets traditional standards for an intelligence", *Intelligence*, Vol.27, No.4, pp. 267-298, 2000.
- [18] P. N. Lopes, M. A. Brackeeet, J. B. Nezleck, A. Schutz, I. Sellin,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inter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Vol.30, No.8, pp.1018-1034, 2004.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04264762>
- [19] M. A. Shin,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leadership on Major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1, No.6, pp.225-236, 2017.
DOI: <https://doi.org/10.21184/jkeia.2017.08.11.6.225>
- [20] Y. H. Yang, E. M. Kim, M. Yu, & S. M. Park,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for Korea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7, No.3, PP.337-346, 2015.
DOI: <http://dx.doi.org/10.7475/kian.2015.27.3.337>
- [21] G. Windle, K. M. Bennett, & J. Noyes, "A methodological review of resilience measurement scales",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Vol.9 No.8, 2011.
DOI: <https://doi.org/10.1186/1477-7525-9-8>
- [22] E. A. Kim, &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2, pp.312-322, 2012.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23] H. S. Hong, & H. Y. Kim, "Effect of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2, pp.221-234, 2016.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6.6.2.024>
- [24] H. H. Park, & S. Y. Kim,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10, No.6, pp.369-378, 2016.
DOI: <http://dx.doi.org/10.21184/jkeia.2016.12.10.6.369>
- [25] M. J. Shin, & Y. E. Chun,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7, pp.281-304, 2017.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7.17.7.281>
- [26] S. H. Han,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Seeking Anxiet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The convergent Research Society Among Humanities, Sociology, science, and Technology*, Vol.9, No.12, pp.1283-1293, 2019.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9.9.12.112>
- [27] M. S. Ko, "Ego-resilience and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ping Strategies &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10, pp.280-291, 2015.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5.15.10.280>
- [28] J. Y. Park, "The Influence of Youth's 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Self-Efficacy Regarding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42, pp.187-208, 2018.
DOI: <http://dx.doi.org/10.20993/jSSW.42.9>
- [29] K. W. Seo, H. Y. Moon,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Resilience, Self-efficacy, Self efficacy of Career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6, pp.233-242, 2018.
DOI: <http://dx.doi.org/10.35873/ajmahs.2018.8.6.020>
- [30] H. W. Jung,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h.D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2007.
- [31] W. Y. Shin, M. G. Kim, & J. H. Kim,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20, No.4, pp.105-131, 2009.
- [32] K. M. Taylor, & N. E. Betz,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22, No.1, pp.63-81, 1983.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https://doi.org/10.1016/0001-8791(83)90006-4)
- [33] K. H. Lee, & H. J. Lee, "The Effects of Career Self-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2, No.1, pp.127-136, 2000.
- [34]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35] Hyun-Young Song, So-Hong Shin,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9 pp.628-640,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9.628>
- [36] K. H. Kim, & E. H. "Influence of Ego-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 Leadership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2, pp.436-44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436>
- [37] J. S. Jung, M. J. Jeong, & I. 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1, pp.27-36, 2014.
DOI: <http://dx.doi.org/10.5977/ikasne.2014.20.1.27>
- [38] K. S. Lee,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universitys student*, Master's thesis,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2009.
- [39] M. J. Kim, & B. W. Kim,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20, No.1, pp.13-25, 2007.
- [40] K. A. Lee, & J. H. Kim,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Search Behavior and Commitment to Career Choice",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12, No.1, 42-49, 2015.
DOI: <http://dx.doi.org/10.16952/pns.2015.12.1.42>
- [41] M. R. Le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tress, commitment to a career choice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2, pp.8767-8775,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767>
- [42] N. An, & T. J. Jang, "The effects of nurses' authentic leadership and nursing college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silien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0, pp.439-453, 2020.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20.20.10.439>
- [43] M. K. Shin, & H. S. kim,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ission Sens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Ego-Resilience as a mediato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0, No.4, pp.131-148, 2017.
- [44] N. H. Kim, S. Y. Park,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Resilience of Student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0, No.3, pp.194-202, 2019.
DOI: <https://doi.org/10.5762/KAIS.2019.20.3.194>

임 현 숙(Hyun-Suk Lim)

[정회원]



- 200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2년 3월 ~ 현재: 호원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다문화여성

류 정 림(Jeong-Lim Ryu)

[중신회원]



- 2020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8년 3월 ~ 현재: 군산간호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여성건강간호, 간호교육